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주의 교육과 여학생 작품의 ‘S’ 감정

윤유나*

차례

1. 가부장주의 담론에서의 순결교육
2. 이화여전의 기독교 교육
3. 센티멘털리즘 감성교육
 - 3.1. 재학생 노천명 시의 동경
 - 3.2. 졸업생 모운숙 시의 ‘파란 눈’에 대한 연민
4. 결론: ‘반기독교적 배경의 이화여전

〈국문초록〉

1920년대 가부장주의 담론에서 여학생의 동성애는 이성애로 옮겨가기 직전에 순결을 지키기 위한 관계로써 여학생에게 권장되고 있었다. 여학생의 발화가 배제된 채 논의되었던 여학생의 동성애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화여전의 학생기독교청년회의 문학부가 주체적으로 발행한 교지 『이화』를 살펴보았다. 이화여전의 교육방침은 식민지의 젠더 분리주의 정책에 따라 작동되고 있었기에 여학교에서 유행하는 ‘여학생 동성애’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여학생의 목소리에서 발견되는 ‘S’ 감정은 여성 문학장 형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비춰진다. 따라서 여학생의 동성애적 감정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였다.

미션계 여학교에서 동성애는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사회적 제도 안에서 ‘동성애’는 개별 여성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에 없었다. 남녀를 구분하는 식민지의 젠더 분리 정책은 ‘동성애’라는 코드가 여학생에게 감성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그리고 여학교 내부의 젠더 분리주의 교육은 여학생이 동성연애를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센티멘털리즘 글쓰기, 학교의 교육방침에 따른 엘리트 여성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우월의식은 식민지의 젠더 분리 정책이 통용된 여성 고등교육기관의 독특한 특징이다.

1장인 서론에서는 1920년대 가부장주의 담론에서 드러난 순결교육과 여학생 동성애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학교라는 공적 공간에서 맺어진 여학생들의 새로운 관계인 ‘S’는 식민지의 교육방침과 관계하고 있었다. 2장에서는 이화여전의 종교교육이 이화여전 여학생들의 엘리트 의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살펴보았다. 이화여전의 종교교육은 여학생들에게 젠더 분리주의를 수용하게 했고, 양성평등을 토대로 여성을 타자화하면서 지식인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바탕으로 교육된 서구의 이성중심주의 사상은 여학생들의 창작행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3장에서는 이화여전의 감성교육이 내재화된 교지 『이화』의 문학란을 통해서 젠더 분리주의 교육이 문학청년들의 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에 필요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화여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이화여전의 교수들은 여학생들에게 지적 연대를 강조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여학생들은 교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감정을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학교 안팎의 교육방침에 따라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동성애’는 자연발생적인 감정으로 드러났다. 이화여전의 문학청년들은 섹슈얼리티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정신적 연애의 표현태로써 동성애적 감정을 드러냈다. 미션계 여학교에서 종교를 위해 활용되었던 문학에 동성애 코드가 섞여 들어간 것은 젠더 분리 정책과 사회의 가부장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여학생 문학의 자율성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받은 여학생의 자연발생적인 감정이 센티멘털리즘 글쓰기라는 저항적

형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지 『이화』에 실린 재학생 노천명과 졸업생 모운숙의 시를 'S' 감정으로 읽을 수 있었다. 결론인 4장에서 교지 『이화』에서 드러난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내면과 학교 바깥의 가부장주의 담론이 충돌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여학생 동성애에 대한 가부장주의 담론은 오히려 여학교를 '반'기독교적 정서를 지닌 장소이게 했다. 이화여전의 문학청년들은 근대적 여성 교육제도에 부합하는 여성 문인의 상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주체를 스스로 변화시키며 예술가로서 식민지 시대에 수용된 근대적 젠더의 틀에 균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핵심어 : 이화여전, 교지 『이화』, 젠더 분리주의 교육, 기독교 교육, 순결교육, 감정 교육, 여학생 동성애, 설티멘털리즘 글쓰기, 노천명, 모운숙

1. 가부장주의 담론에서의 순결교육

『신여성』에서 김기전은 1920년대 당대의 신여자를 소개하면서 “여자들 사이에는 이 동성애가 잇슴으로 해서 정서의 애뜻한 발달을 재촉함이 되고 따라서 남녀간의 풋사랑에 대한 유혹을 면함이 될 것”¹⁾이라면서, 여학생의 동성애는 “이화학당,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순으로 정도의 심함”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당시 경성에서는 여성의 동성애, 특히 여학생의 동성애 문제가 자주 거론되었고, 성인 여성들은 여학생 시절의 동성애 경험을 회고하며 추억하는 글을 잡지에 실기도 했다.²⁾ 여학생의 동성애는 여학교에서 하나의 문화로 유행하고 있었다. 박차민정은 “공적 공간을 통해 맺어진 새로운 관계야말로 이 친밀성을 ‘낭만적 사랑’이라는 감정의 형식으로 인식하고 명명할 수 있게 만든 필수적인 조건”이었다고 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이른바 ‘S’의 유행을 이성애의

1) 소훈, 『요새의 조선 신여자』, 『신여성』, 제1권 2호, 개벽사, 1923. 11, 58쪽.

2) 황신태 외, 『여류명사의 동성연애기』, 『별건곤』 제34호, 1930년 11월 01일.

대리 보충 격인 유사 연애의 한 형식으로 보는 것을 비판한다. “낭만적 사랑을 함축하는 ‘연애’라는 용어가 식민지 조선에서 대중화된 것은 1910년대 말~1920년대로 여학교에서 S의 유행이 시작되었던 시기와 거의 일치”³⁾한다. 이 시기는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지나치게 실업 교육에 편중되었던 여학교의 교육이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규칙 완화로 종교교육과 외국어교육이 허가되었던 시기⁴⁾와 맞물린다. 여학생들의 교육이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교양인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연애가 대중화되고 여학교에서 S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외국어교육과 종교교육이 여학생들을 감성적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씨스타(Sister)의 은어인 S는 일본 사회에서 여학생 간의 강한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써 여학생 동성애를 지칭하는 다른 많은 은어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1910년대에 이르러 문학작품에서도 자주 표현되는 등, 일본 여학생 문화에서 여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하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다.⁵⁾ 이후, 식민지 조선에 유입된 ‘S’는 여학생의 ‘동성연애’⁶⁾와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여학생들이 여성인 대상에게 애뜻한 감정을 주체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했다는 점에서 ‘동성연애’와 차이가 있다. 여학교를 중심으로 유행한 S는 여학생들의 고유한 문화적 표현으로 기능하였다. 하신애⁷⁾는 1920년대의 부계적이며 봉건적인 기존 질서로부터 벗

3)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234-235쪽.

4) 이승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 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210쪽.

5)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志の親密な關係』, 角川學芸出版, 2011, 101~206쪽 참조.

6) 신지연은 1920~30년대의 식민지 조선에서 ‘동성애’와 ‘동성연애’는 거의 구분되는 용어가 아니었고 분석하면서 유입 초기의 ‘연애’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감정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성애’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당시 미성숙한 주체로 규정되었던 여학생의 감정 문제로 논의하였다(『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272, 280-283쪽 참조).

7) 하신애, 『전시체제 하의 여성성과 징후로서의 동성애』,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12, 390-397 참조.

어나 ‘근대적 공간’에 머무르고자 했던 여학생들의 욕망이 여학생의 동성 연애로 표출되었다고 하면서 동성연애를 1920년대 근대적 여성성의 표상으로 규명했다. 학교는 부계의 질서와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여성에게 ‘근대인으로서의 위상’을 온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였고, 동성 간의 관계가 자유롭게 형성되는 공간이었다. 젠더가 분리된 장소인 학교에서 여학생은 근대인으로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였다.

여학생 간의 동성연애가 유행하기 시작한 1920년대를 지나 1930년대에 이르러 유일한 여성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이화여전에서는 ‘동성애’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엘리트 여성을 양성하고자 설립된 최초의 여성 전문학교인 이화여전⁸⁾에서는 1930년대의 시대적, 교육적 방침에 따라 문예 분야의 전문화가 도입되었다. 이화여전의 엘리트주의 교육은 세부 전공인 문학, 음악, 가정학을 모두 종교로 귀결시켰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화여전이라는 유토피아를 형성하게 했다. 이때 기독교의 교리는 평등사상에서 기인하는바 남녀평등을 설교하는 기독교에 매료되지 않은 엘리트 여학생은 드물었고, 인간을 “최초 근성에 귀화”⁹⁾시키고, 진리를 탐구하게 하는 기독교를 이화여전 여학생들은 맹신하였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결성된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는 교지 『이화』¹⁰⁾를 주체적으로 발행했다. 이화여전의 지식인 여성들은 교지 『이화』¹⁰⁾에서

8) 윤유나는 이화여전을 문학이 생산되는 하나의 문학장으로 보고, 학적 관계망을 통해 이화여전의 여자 ‘청년’ 문인들이 어떻게 여성 문학장을 형성하며 사회 진출 후 문학·문학장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여성 문학장의 형성 과정을 객관화하면서 그 속에 함께 출현하는 개별 시인의 특이성을 통해 ‘이화여전’이 이화여전 출신 문인들에게 자매애를 느끼게 하는 공간임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개별 특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보다는 ‘이화여전’이라는 연대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므로 개별 특이성을 분석 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 이화여전 여학생들의 글과 이화여전 출신 여성 문인들의 글에서 보여지는 자매에 대한, 동성 동무에 대한 동성애를 1930년대 경성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화여전이라는 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윤유나, 『이화여전 출신 문인과 여성 문학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9) 모윤숙, 『종교교육의 필요』, 『이화』 1, 1929, 30쪽.

10) 교지 『이화』에는 노천명과 모윤숙으로 대표되는 이화여전 출신 문인들의 작품과

전문적인 식견을 드러냈으며, 시조, 시, 산문, 소설 등을 실으며 여성 문학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화여전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글쓰기로 표현했는데, 특히 시로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글쓰기를 스스로 ‘예술적 행동’이라 여겼다. 김행숙은 감정이 “‘영혼의 구원’을 담당하는 분야로 생각되었던 기독교의 토대로 설정됨으로써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감정’을 토대로 예술과 기독교가 같은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두 영역에서 모두 ‘영혼’이라는 용어와 그 개념이 독자적인 자기의 영토를 구분해내고 권위화하는 데 큰 효력을 발휘”¹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으로 감정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 이화여전의 문학청년들은 예술(문학)을 종교를 위한 도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화여전을 졸업한 모운숙은 “학생 시대의 예술관이란 너무나 종교를 예술보다 높이 보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예술적 행동이란 너무 환상적이었고, 비현실적”¹²⁾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종교에의 정념은 모운숙 뿐만 아니라 당시 이화여전 여학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예술적 행동이 기독교 교육과 충돌함으로써 문학의 독자적인 영역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교육의 영향으로 정신이라는 무한한 창조의 영역에서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받은 그녀들의 감정은 대상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S 감정은 센터멘털리즘 글쓰기로 표현되고 있었다.

여성 문학가에게 주어지는 ‘소녀적 취향의 센터멘털리즘’이라는 문학적 한계에 대한 비판은 남성 문인이 여성 문인을 비판하는 데서 발생하는

지식인들의 논설 등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글들이 실려 있다. 하여 박지영은 교지 『이화』를 이화여전이라는 지식인의 장으로 규명하였다. 박지영, 『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 연구 - 지식인 여성의 자기 표상과 지식 체계의 수용 양상』,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532-572쪽.

11) 김행숙, 『내면의 미적 발견과 유토피아』, 『한국학연구』 2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90-94쪽.

12) 모운숙, 『여류문장가의 심경타진』, 『삼천리』, 1935. 12, 90쪽.

젠더 차별의 한 특징일 수 있지만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교육 과정에서 유통되어 내려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식민지 시기 신여성의 교육은 여성들에게 이중억압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중억압 상황에서 여성 문인들의 센터멘털리즘적 표현은 저항하는 주체의 글쓰기로 비춰진다.

가부장주의 담론에서 여학생의 동성애는 순결교육의 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¹³⁾ 사회적 현상으로는 가십거리가 됐지만 여학생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권장되기도 한 동성애는 학교의 안과 밖에서 연애로써 표현되고 인정되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동성애 체험이 가부장주의 담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은 이질적이다. 연애의 문제가 남녀의 연애사로 갈 때에만 여성의 순결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학생 동성애는 정신적으로만 행해야 하는 연애로 제한되고 있었다.¹⁴⁾

여학생 동성애 담론에서 가장 문제적인 점은 여학생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에 이르러 여학생들은 동성애적 감정을 매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었다. 여학생들의 동성애적 감정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글을 발표했던 교지 『이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학생에게 감성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한 '동성애'라는 표현태가 여학생들에게 감성적 근대인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여학교를 기반

13) 현루영은 『신여성』에서 여학생의 동성애가 남녀 간의 사랑 전에 여성의 순결을 지켜주는 것으로 보고 여학생의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현루영, 『여학생과 동성연애문제 -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진전할 때의 위험』, 『신여성』, 제2권12호, 개벽사, 1924. 12, 22~25쪽). 『별건곤』의 『여류명사의 동성연애기』에서 여성들 또한 '여학생'의 동성애가 남녀의 결혼으로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 '여학교 시절의 추억'으로 여긴다(황신틱 외, 『여류명사의 동성연애기』, 『별건곤』 제34호, 1930년 11월 01일).

14) 『성교육으로 본 동성애의 폐해, 아무리 동성애라도 생리적으로 진행하면 방임하여서는 못 쓴다』, 『중외일보』, 1929년 11월 03일, 01쪽.

으로 여성 문학장을 형성해나가는 하나의 계기로 보인다. 사회적 제도 안에서 ‘동성애’는 개별 여성의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남녀를 구분하는 식민지의 젠더 분리 정책은 동성애라는 코드가 여학생에게 감성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담론을 형성했다. 그리고 여학교 내부의 젠더 분리주의 교육은 여학생들의 동성애적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항하는 여학생들의 S 문화는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센터멘탈리즘 글쓰기와 엘리트 여성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우월의식과 관계한다. ‘S’는 식민지의 젠더 분리 정책이 통용된 여성 고등교육기관에서 생활했던 여학생들의 인식 감정이었다.

위의 논의에 따라 2장에서는 이화여전의 종교교육을 이화여전 여학생들이 어떻게 수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호머 헐버트와 김두헌의 글을 분석하고, 재학생 주수원의 글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이화여전의 감성교육이 내재화된 교지 『이화』를 통해서 젠더 분리주의 교육이 문학청년들의 작품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화여전의 여학생들은 종교교육의 영향으로 문학의 가치를 문학에의 활용에 두고 문학을 인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예술적 행위로 여기면서 ‘S’ 감정을 드러내었다. 여학생의 동성애적 감정이 어떠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재학생 노천명의 시와 졸업생 모운숙의 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인 4장에서는 교지 『이화』에서 드러난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내면과 학교 바깥의 가부장주의 담론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가부장제의 여학생 동성애 담론이 오히려 학교를 반기독교적 정서를 지닌 장소이게 한 혐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이화여전의 기독교 교육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여학생 동성애’가 신여성의 집결지인 이화여전

내부에서 왜 자연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었고, 여학생들 간의 동성애적 감정 표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자. 교지 『이화』에서는 지식인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양성평등 문제, 지역사업 확대와 참여에의 촉구, 선교사들의 생명사상과 사랑의 의미를 전파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주로 실렸다.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가 주체적으로 펴내는 교지 『이화』에는 여학생이 대상화되지 않았다. ‘여학생’을 대상화하는 학교 바깥 사회에서 여학생은 근대적 여성상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학교 내부에서 이화여전의 여학생은 다만 소수의 엘리트 ‘학생’이었다.

1920년대 이후 자유연애와 섹슈얼리티를 추구하는 여학생들은 기독교와 멀어졌고, 유교와 같은 맥락에서 도덕적 구속을 강요하는 여학교의 기독교 교육을 비판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1930년대로 접어든 이화여전의 종교의식은 김행숙의 1910년대의 논의와 같이 종교에의 정념이 한층 더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화여전의 교장사들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기반으로 젠더 평등교육을 실시하는데 남녀평등 사상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교지 『이화』의 학생기독교청년회 문학부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우월하다는 선교사의 글을 게재한다. 남성의 경쟁하기 좋아하는 성격은 오늘날의 전쟁을 만들었지만 “여성들은 인도를 위한 외에는 쟁투를 불금하니 기레를 들면 모친의 자녀를 위한 도덕적 분투로 시하여 금일 소위 아동보양운동, 사회개량운동, 금주운동 및 평화운동”¹⁶⁾ 등으로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인간으로 분류하였다.

육체의 본능적 활동으로 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격렬하며 적극적이다. 그리하여 전자는 활동력이 부하며 후자는 절지력이 강하다. 그러나 남성의 활동력 차별은 본능적으로 다르다는 것보다 필요에 응하여 나는 것이니 생활 문제에 걸린 여성이 유여한 남자이상에 활동과 수입을 득함은 현 조선신여자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사회활동을 떠나 가정주부로 보더라도

15) 엄미옥, 앞의 책, 299-305쪽 참조.

16) 홀법, 『양성의 특질』, 유형기 역, 『이화』 1, 1929, 15쪽.

도 상당한 여성의 가정상 책임이란 남성의 상상하는 여러 배 이상일 것이다. 이 점에서 남편된 이들은 부인들에게만은 동정을 가져야 될 것이다.

(…)

많은 학자들이 인생은 종교적이라고 주창하여 왔다. 물론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인생 중에도 여자는 특수한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자의 심정과 태도는 대자연에 의한 감응이 강하며 그는 육체적으로 심약하여 조물주의 보호를 남자보다 먼저 구하게 된 것이다.

(…)

아메리카와 같이 남녀공학제도가 대대적으로 실행되는 곳에 실례를 들면 우등생중에는 늘 여자의 수효가 현저히 많다. 여자는 비교적 남자보다 먼저 열성 되어 또 선생의 지도대로 이행하는 근성이 강함으로 남자 같으면 겨우 낙제나 면하리만침 할 것이라도 여자는 비록 취미가 적은 과목이라도 참고 해나가는 까닭이라고 하겠다. 하여간 남녀공학제의 실현으로 여우남열 일지언정 남우여열은 사실 멀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위 글은 『이화』 창간호에 실린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인 호머 헐버트의 글이다. 호머 헐버트는 조선의 항일운동을 적극 지지한 기독교인이자 교육자였다. 이 글을 번역한 유형기는 한국 감리교회의 목사이고, 유관순의 스승으로 알려진 이화학당 출신 신준려의 배우자이다. 이 글에서 호머 헐버트는 남녀를 비교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다. 양성의 특질을 설명하며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는 듯한 이 글은 남녀를 이분법으로 분류하여 남녀의 우열을 가리고 있다. 남성에게 가정은 책임지는 여성을 ‘동정’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가정의 일은 여성의 책임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가정의 일을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인도주의적 운동을 도덕적 책임감에서 발현시키고자 함은 가정만을 책임지는 여성에게 사회활동의 참여를 권고하여 여성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17) 위의 글, 16-17쪽.

것이지만 엘리트 여성에게 이중책임이라는 억압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화여전의 문학청년들과 함께 문단 활동을 한 최정희는 『삼천리』에서 신혼 지식인 여성들의 출현이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는데¹⁸⁾ 당시 사회에서 기대하는 인텔리 여성의 역할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에 대한 책임은 덜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기독교의 “종교적 기능”에 따라 분류된 “여자”에게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여한 여성의 콤플렉스를 종교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도를 목적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여자의 심정과 태도는 대자연에 의한 감응이 강”하며 여성은 “육체적으로 심약하여 조물주의 보호를 남자보다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여성을 전도의 대상을 삼고 과도한 교리를 주입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중억압에 짓눌린 여성의 특질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남녀를 분리하고 여성을 타자화 하면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화여전 여학생들은 직업면에서도 ‘남자 이상의 수입을 득’하고 있다면서 ‘남자에 비해 우월한 여성’을 강조하는 젠더 분리주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고 있었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주의 교육은 타자화된 여학생들에게 정신 활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며 창작 행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주의는 서구의 이성중심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교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화여전의 강사와 교수의 이성중심주의적 가르침을 습득하고, 지와 행의 일치를 정신의 활동으로써 인식하고 실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고 정신의 활동을 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①우리 정신은 본질상 무한한 활동이요 또 이 정신 활동은 실재의 전체

18) 최정희, 『조선여성운동의 발전과정』, 『삼천리』, 1931. 11, 94-96쪽.

이다. 그러므로 Croce는 지와 행(knowing and practical acting)을 우리 정신활동의 근본적 이형식이라 한다. 전자는 지식 즉 이론적 활동을 말함이고 후자는 의지행동 즉 실천적 활동을 말함이다.

(…)

지와 행의 관계는 병행된 것이 아니고 의존된 것이니 이는 곧 원으로 상징됨이라 하겠다. 실재를 미적으로 해석한다던가 철학적으로 고찰한다던가 또는 역사적으로 재현한다던가에 의하여 지식이 생기는 것이며 이 지식을 기초로 삼아 우리는 의지행동을 실현한 것인데 이 행동은 또다시 예술과 철학과 역사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

이 최후의 구는 실로 절대 즉 로고스의 의의를 지행일원의 견지에서 전일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생명과 광채는 전혀 이 로고스에 기본된다. 이 로고스는 신, 도, 법, 언, 부(성), 이, 이념, 사, 의의, 사고, 력, 행동으로써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니 거기에는 아무 비밀이 존재함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여실한 경험을 전일적으로 현현함에 불과한 것이다. 즉 로고스는 전체이다. 따라서 이것을 역함은 부분화하게 됨이다. 그러므로 피테가 요한전의 처음에 잇는 말(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을 역함에 고심하였음을 그의 각저 파우스트에 볼 수 있스니 피는 결국 로고스를 행이라 역함으로써 만족하였다. 현금의 신약에 말이라고 잇슴은 처음 루터가 Wort라고 역함에 의한 것이다.

우리 인격은 in the made에 있지 않고 in the making에 있다. 우리 정신은 무한한 창작적 활동이다. endless Progress는 진실로 우리 생명의 전부라 할 것이다.¹⁹⁾

② 먼저 무엇을 가리켜 생명이라 하는가?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곧 생명이란 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분간하는 그것이니 원형질의 독특

19) 김두현, 『지행소론』, 『이화』 2, 1930, 3-9쪽.

한 활동이다. 이 활동이란 동화, 분화, 증대의 작용으로 무한히 자기를 계속 하려는 움직임이니 이 움직이는 힘이 곧 생명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견지에서 생명의 연장선을 해석하려면 구태여 연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지니 생명 그 자체 속에는 번식작용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자기를 보존시키고자 하는 힘이 포함되어 있음이다. 그럼으로 여기에서 다만 문제되는 것은 자체를 보존하기에는 능숙 있는 후예를 생산하는 것이겠다. 다시 말하면 생존 경쟁에 패하지 아니할 최적자만을 산출하는 것이 큰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우생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한 번 머리를 돌이켜 생각하여 보자.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하며 그 영장된 소유는 이성을 가짐이라 한다. 그러면 현성을 소유한 사람의 생명을 다른 미생물의 생명과 같이 원형질의 활동이라고만 해석하여 만족할 수 있을까? 물론 생명이란 어의에 근거에 있어서 미생물이나 최고위에 있다는 사람이나 움직이는 힘을 가졌음에서는 다름이 없다할 터이다.

(…)

그럼으로 우리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기계적 욕구에 응하는 것 뿐아니라 이성의 가장 고상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서 참의미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란 것도 다만 후형질의 활동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령을 더 가한 것이라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의 말씀 이것이 이성을 소유한 사람의 생명을 해석해주는 각언이다.²⁰⁾

이화여전에서 윤리를 가르쳤던 강사 김두헌은 ①에서 서구의 이성중심적 사고를 강조하며, 말을 하는 행위/글을 쓰는 행위는 이성에 근거해야 하고, 행동은 정신의 표현이므로 이성적 사고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로 “의존 되는” 것이니 “곧 원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종교와 역사, 철학 등을 포함한 “원”은 전체를 뜻하며, “로고스” 자

20) 주수원, 『생명의 연장선』, 『이화』 2, 1930, 29-31쪽.

체이기도 하다. “원”은 무한한 정신활동이자 이성 중심의 창작행위를 내포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말”은 “지”와 일치하는 이성의 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두헌은 괴테가 “요한전”을 번역했을 때 “태초에 로고스(말)가 있”다라고 한 것을 예로 들면서, ‘문학’이 ‘태초의 로고스’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최초의 창작활동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에 문학은 “로고스”적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화여전의 윤리교육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사고를 행하는 것이었고,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역사, 철학, 예술 교육이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었다.

②에서 주수원은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인, “생명”을 통해 정신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에 고상한 참의미”를 가하기 위해선 “심령”이 가해져야하는데 이는 기독교의 교리로써 가능하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주장하는 ②주수원의 글은 ①에서 김두헌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생명과 광채는 전혀 이 로고스에 기본된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주수원에 따르면 “이성을 소유한 사람의 생명을 해석해주는 각언”이 예수의 말씀인데 이는 ‘로고스’로서 증명될 수 있는 ‘생명’이다. ‘학’으로써의 ‘지’와 실천양식으로써의 ‘행’이 영혼과 등가 되는 생명존중을 설파하는 기독교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수원은 ‘우생학’을 비판하면서 생명이란 “이성의 가장 고상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서 참의미”가 있으니 “후형질의 활동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령을 더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 영혼과 등가되는 말로써 여성에게 우월의식을 심어주는 형이상학적 의미 자체이다. 주수원으로 대표되는 이화여전의 문학부원들은 기독교 교육을 통해 이성이라는 정신의 영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생명(영혼)으로 존재하며, 남성과 분리된 공간에서 엘리트 의식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창작활동 역시 기독교 교육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화여전 문학청년에게 예술은 ‘지의 행’이었기에 그녀들은

정신의 무한한 자유로써 자연발생적인 감정을 글쓰기로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푸코는 “모든 도덕적 행동은 현실 속에서 규약에 의거하여 실행되며, 규약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와의 어떤 관계 또한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일에서 “개인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이 도덕적 실천의 대상이 되는지를 한정하고, 자신이 따르는 계율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정의하며, 자신의 도덕적 완성에 값할 만한 어떤 존재방식으로 스스로를 정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알려고 하며, 스스로를 제어하고, 시련을 겪게 하며, 스스로를 완성시키고 변화시킨다”²¹⁾고 했다. 이화여전의 문학청년들은 스스로를 도덕적 주체로 세우는 과정에서 문학을 활용하였는데, 이때 사회의 규약과 관계하는 이화여전 여학생이라는 주체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면서 자신의 글쓰기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기독교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받은 자연발생적인 감정은 센티멘털리즘 글쓰기로 표출되었다. 이렇게 이화여전의 문학청년들은 섹슈얼리티가 소거된 동성애적 감정을 매체를 통해 드러낼 수 있었다. 도덕적 주체가 형상화하는 동성애적 감정은 근대적 젠더의 틀에 균열로 1930년대 여성 문학장의 한 특징이다.

3. 센티멘털리즘 감성교육

이 장에서는 우선 이화여전의 감성교육이 내재화된 문학청년들의 시를 통해서 젠더 분리주의가 문학청년들의 작품에 끼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화여전의 여학생들은 종교교육의 영향으로 문학의 가치를 문학에의 활용에 두고 문학을 인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와 관계하는 규약으로 생성된 도덕적 주체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엘

21)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역, 『성의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18, 46쪽.

리트라는 높은 자의식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의 글에서 동성애적 감정이 포착되는 것은 동성애가 학교 교육을 내재화한 엘리트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행위가기 때문이다. 미션계 여학교에서 발행하는 교지에 동성애 코드가 섞여 들어간 것은 젠더 분리 정책과 사회의 가부장주의 담론에 대항하는 여학생 문학의 자율성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교지 『이화』에 실린 이화여전의 재학생 노천명과 졸업생 모운숙의 시를 S 감정으로 해석한다. 당시 평균 40전에 시판되었던 교지 『이화』는 학교 바깥의 대중에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종합 잡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교지 『이화』 역시 타전문학교의 교지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사상적 동향을 살피기 위한 식민지의 “간접적인 정보자료”로 사용되었다.²²⁾ 교지 『이화』에 동성애의 색슈얼리티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것은 기독교 교육의 보수적 성향과 식민지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독교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받은 감정의 표현 태를 우정이 아닌 동성애로 읽어야 하는 것은 문학청년 노천명과 모운숙의 작품에서 젠더 ‘혼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모운숙과 노천명은 교지에 발표한 시에서는 여성적 어조로 발화하고, 학교 바깥의 매체에 작품을 발표할 때에는 시에서 남성적 어조를 사용하였다.²³⁾ 이는 이화여전의 교육 방침과 이화여전을 둘러싼 가부장주의 담론에서 비롯된 억압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교지에서 여성(동문과 선교사)에 대한 감정을 시로 표현할 때 여성적 어조를 사용한 것은 여학교 내부에서 유행한 S와 관계한다.

교지 『이화』에 실린 노천명과 모운숙의 작품은 여학생의 친밀성을 보도했던 매체²⁴⁾와 대조된다. 교지 『이화』에서 노천명과 모운숙은 고백하

22) 오문석, 『식민지 시대 교지(校誌) 연구 (1)』, 『상허학보』 8, 상허학회, 2002, 17쪽.

23) 윤유나, 앞의 논문, 61-86쪽 참조.

24) 1931년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등포 철도 자살사건’은 현모양처이념과 순결의 식에 지배당했던 두 여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을 비판해 동반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은 두 여성 중 한명인 홍옥임은 이름난 기독교 집안의 자녀이고 1931

는 화자로써 여성이라는 대상과의 관계에 집중한다. 그리고 섹슈얼리티를 소거하는 대신 관계에서 비롯되는 자신(화자)의 감정을 형상화하였다. 여학생 동성애가 여성의 목소리로 발화되었을 때 오히려 '정신적 연애'로 표현되는 것은 교육 받은 여성이 자연발생적인 감정을 주체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사회의 가부장주의 담론에 대항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문학작품에서 등장하는 S 감정을 근대의 신식 감정으로 규정하고, 여성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화여전에 재학중이던 졸업반 김애다와 동문 유정옥²⁵⁾은 불치병인 결핵에 걸려 1931년, 1932년에 각각 죽음을 맞이한다. 유정옥과 김애다의 죽음으로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은 상실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형상화하는 시를 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동무'라는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을 고백하고, 동무에게 쓰는 서한 형식의 작품을 교지 『이화』에 신기 시작한다.

상실한 대상을 애도하는 글이 빈번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창간호 다음인 『이화』 2집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 당시 상실감은 식민지 조선 공통의 정서였다. 그러나 교지 『이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글에서 표현하는 상실한 대상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으로 나르시시즘의 성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 나르시시즘이 대상 선택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대상 선택의 차이가 보편적이진 않지만 “부모 의존 유형의 대상 사랑은 남성들의 특징이며, 눈에 떨 정도로 성적 대상을 과대평가하는 경

년 4월에 이화여전 음악과에 입학했다. 조선일보는 1931년 4월 10일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하고 1931년 4월 11일부터 5번에 걸쳐 이 사건을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1931년 4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홍옥임은 이화여전 음악과에 입학한 날 일기장에 “세상 사람은 모두 가면을 쓴 천사다. 나는 학교도 세상도 다 싫다”고 썼다(『철로의 이슬된 이룬의 물망초』, 『조선일보』 1931년 4월 11일).

25) 본교 문과 동창생 유정옥양은 병으로 금년옥월십삼일에, 문과재학중이었다가 병으로 여러해 고생하던 금애다양은 작년십월삼십일에모다세상을 떠나갔습니다(『슬픈 소식』, 『이화』 4, 1932, 107쪽).

향”을 보이고, 이런 “대상 사랑은 어렸을 적의 근원적인 나르시시즘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나르시시즘이 성적 대상으로 전이된 것”이다. 따라서 남자 어린이가 최초로 선택하는 성적 대상이 어머니이거나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이유는 자기 보존의 목적에 기여하는 최초의 “자기애적 성적 만족”²⁶⁾과 관계한다고 규정하였다. 프로이트는 이를 남성의 경우로 설명하였지만 이화여전의 문학청년들이 문학작품에서 부여하는 젠더의 정체성은 프로이트가 남성의 특징이라고 말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화여전 여학생들의 주체는 사회적 역할에서 남성성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가 드러났다. 인텔리틱 자의식이 강한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이 작품에서 상실한 대상을 어머니 등의 여성으로 표현하고 이화여전의 자매애를 강조하는 것은 자기 보존 목적에 기여하는 자기애의 성적 만족이다. 그리고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을 상실한 여학생들은 대상에 대한 카텍시스를 철회(withdrawal of cathexis)하면서 동성 동무에게 애도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교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인 이상화된 ‘동무’는 이화여전 개별 주체가 선택한 나르시시즘²⁷⁾적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1931년에 이화여전의 여학생 ‘노엽’은 ‘귀족도’의 울음소리로 상실한 벗에 대한 마음을 형상화하였다.

뒤틀린산술가지귀족도홀노
 일허진뱃뱃을차즈려고
 흰달을향하여하소하는 듯
 귀족도외로히울고잇서요

지내간여름엔이동산에서
 이가지저가지오락가락

26)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16, 64-65쪽.

27)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에 있어서의 원하는 대상은 이미 자기 자신이라는 대상”이다(캘빈 S. 홀,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137쪽).

숫적다숫적다늘에부르면
 풍년이러사람들깃버했지요

올해엔벗일흔귀촉도홀노
 다시못올넷벗을그리면서
 그흰목을가늘게느리우고
 귀촉도귀촉도싫게울지요

『귀촉도』²⁸⁾(전문)

이 시에서 화자는 “숫적다”라는 울음소리와 “귀촉도”라는 울음소리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기쁨과 슬픔을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다시못올넷벗”을 그리면서 “흰목”을 가늘게 늘린 “귀촉도”로 벗의 죽음과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 “귀촉도”는 벗을 잃은 화자 자신인데, 화자의 어조와 “흰목을가늘게느리우고”로 미루어 볼 때 여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소하는듯” 향한 곳 또한 여성을 상징하는 “흰달”이다.

위와 같이 교지 『이화』의 문학란에는 ‘남성’이 부재하며, ‘여성을 애도하는 여성’이 주로 그려지고 있다. 문학청년들이 시에서 대상에게 여성이라는 성별을 부여하고, 여성을 상징하는 시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주의 교육이 내재화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화여전의 교장인 아펜젤러²⁹⁾와 이화여전의 교수인 김활란³⁰⁾은 사회에 필요한 지식인 여성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화여전 학생들에게 지식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글을 게재했다. 엘리트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책임’이란 사회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젠더가 분리된 이화여전에서 ‘남성은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

28) 노엽, 『귀촉도』, 『이화』 3, 1931, 142쪽(노엽은 필명인 듯하다).

29) 아펜젤러, 『이화와 여자교육』, 조정환 역, 『이화』 1, 1929, 3-6쪽.

30) 김활란, 『조선여학생의 이중책임』, 『이화』 1, 1929, 10-12쪽.

아래는 이화여전 문과의 교수였던 이희승이 지은 『이화료가』의 1절이다. 이희승 또한 아펜젤러와 김활란과 같이 이화여전의 교육이념을 ‘료가’에 담아내고 있다.

십삼도에서 모더든 이화의 식구
누구나 조선이란 한어머니딸
언니요 아우요 손목을잡고
큰 이상 바라보며 발마쳐간다

『이화료가』³¹⁾중에서

이화료가의 마지막 6, 7절은 아래와 같다.

6,
바람은 맑고나 달은밝고나
기러기 나의마음 끌고가노나
한동모 옆에와 위로하는말
그마음 거두어서 책에나담세

7,
갈수록 정드는 이화의 동산
이집은 언제든지 우리의 낙원
볼수록 반가운 이화의형제
영원히 변치않을 지기의 동모

시인이자 국어학자였던 이희승 또한 젠더 분리주의 교육을 『이화료가』

31) 이희승, 『이화료가』, 『이화』 4, 1932, 106쪽.

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이화의형제'끼리 정을 나누며 지적 연대를 형성하는 이 노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지어졌다. 이화여전은 '여성' 동무와의 '정'만이 허용되는 곳이었다. 이화여전 교수들의 교육이념은 학교 바깥의 가부장주의 담론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여학생의 감성 발달을 여성들 간의 교류에서 확인하게 했다. 여학생의 감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정'의 문제가 남녀의 연애사로 가면 여성의 순결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화여전'은 여학생들에게 문제되지 않는 방식의 연애의 장을 열어준 것이다. 여학교의 감성교육에서 강조하는 '정'은 젠더 분리 정책이 통용된 장소에서 여학생들에게 내재화되었다. 그리고 '정'의 자유를 주창하는 근대적 자유연애담론은 젠더가 분리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S를 열망하게 했다. 이때 문학은 '정'의 자유를 갈망하고 부추기는 통로이자 '정'을 표출하는 창구가 되었다. 젠더가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문학교육을 기반으로 이화여전의 여학생들은 여성을 대상화하여 감정을 글로써 표출하였다. 순결을 강조하며 이중책임을 가한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정책과 사회의 가부장주의 담론은 여학생들이 문학작품에서 독립된 젠더관을 형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1. 재학생 노천명 시의 '동경'

이화여전의 교육방침이 내재화된 교지 『이화』에 실린 노천명의 시를 살펴보았을 때, 동성애적 감정이 포착되었다. 노천명은 교지 『이화』에 시를 자주 발표하였고 대상화한 인물은 주로 어머니, 동무 등의 '여성'이었다. 어머니와 사별하고, 진학으로 인해 같이 지내던 언니와도 결별하게 된 노천명에게 이화여전의 동무는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였다. 노천명은 아래의 시에서 동무에 대한 애뜻한 감정과 '알 수 없는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녹음, 소망의 정령인 녹음이

푸른손으로 분명히 나를 부르기에
나는 뛰어 나갔었소
그리고 무엇을 찾을것만 같애
그아래를 거닐고 있었었소
내옆에 풀잎을 헛치는 동모 하나
내일 크로-버-를 찾는다고
그가 왜 그다지 이상히 보였을까?

그러나 그가 귀엽지 않으오?
사투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이 귀엽지 않으오?
그 얼마나 귀여우오
그리고 얼마나 어린애같이 복된사람이오

나도 그를따라 풀잎을 헤쳐보았소
그러나 찾으면 복되다는 네잎크로-버-를
영영찾지 못한 서운한 마음
이름모를 적은꽃 하나
따서 옷기슴에 꽂았었소
지나든이 이꽃보고 그이름 물망초라기에
나는 빼여 냇가에 던졌었소
던졌으니 그만일 것 같은데
왜 이마음은 아즉도 이다지 서운하다오?

1933. 8.

「그 이름 물망초라기에」³²⁾(전문)

“소망의 정령인 녹음”이 부르는 곳으로 뛰어간 곳에는 동무가 있고, 동무는 “사똥한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증명해줄 네잎 클로버를 찾고 있다. 화자는 네잎 클로버를 찾는 동무가 이상해 보이지만 어린애 같이 귀여운 마음을 지닌 동무와 함께 네잎 클로버를 찾는다. 그러나 화자는 찾으면 ‘복’되다는 네잎 클로버를 영영 찾지 못한다. 이때 “복”은 어린애 같이 순수한 사람을 꾸며주는 말로써 희망을 의미한다. 네잎 클로버를 찾지 못한 화자는 “이름모를 적은꽃”을 “웃가슴”에 꽂았다가 “그이름 물망초라기에” 냇가에 던진다. 그러나 던졌으면 그만일 텐데 “이마음”은 아직도 서운하다고 물으며 시를 끝맺는다. 찾으면 “복되다”는 네잎 클로버를 찾지 못한 화자가 네잎 클로버에 대해 “영영찾지 못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시에서 “동모”는 보이지 않고 “지나든이”가 등장한다. 시에서 네잎 클로버를 찾는 “동모”가 네잎 클로버를 영영 찾지 못하는 서운함과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아 “동모”는 “소망의 정령인 녹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화자는 “소망의 정령인 녹음”이 ‘분명히’ 자신을 부르는 것을 느꼈을 테다. 그런데 화자는 어쩔 일인지 푸른색을 띄는 물망초를 가슴에 꽂고, 이름을 듣자마자 냇가에 던진다. 아직도 서운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네잎 클로버를 찾지 못한 마음과 본인이 선택한 꽃이 “녹음”이 아니라 푸른 물망초라는 것이 모두 뒤엉켜 ‘슬픈 예감’인 것만 같다.

노천명은 시에서 동무에 대한 애정과 혼자 남아 슬플 것 같은 ‘슬픈 예감’을 비현실적인 환상의 공간과 현실적인 공간을 교차시키며 표현했다.

노천명은 후에 “낮선 거리에서 금발의 처녀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교정』을 첫 시집 『산호립』에 실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이국적인 교정의 풍경을 회상하다 기억 속 낮선 거리에서 만난 금발 처녀의 “깊숙이 들어간 정열적인 그 눈이/이국 소녀를 응시하면/‘형제여!’/은근히 뜨거운 손을 내 밀리라”³³⁾고 고백한다. 이 시에서도 동무에게 느꼈던 감정을 시로 표현

32) 노천명, 『이화』 5, 1934, 40쪽(노천명은 이 시를 첫 시집에 넣지 않았다).

33) 노천명, 『노천명 전집 1: 사슴』, 서울, 1997, 19쪽.

한 것인데, 각각의 시에서 “동모”와 “소녀”는 모두 신비롭게 그려진다. 금발 처녀의 정열적인 눈에 비춰진 “이국 소녀”는 “뜨거운 손을 내밀” 화자 자신이다. 금발 처녀에게 “이국 소녀”인 화자는 금발 처녀의 “정열적인 그 눈”에 응시되길 욕망하고 있다. 금발 처녀에게 타자인 근대의 여학생은 서양에서 온 아름다운 “너”를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3.2. 졸업생 모윤숙 시의 ‘파란 눈’에 대한 연민

여학생 노천명이 동무와 ‘선교사’라는 금발 처녀에게 느낀 ‘동경’의 감정을 시로 표현했다면 모윤숙은 ‘파란 눈’의 대상에게 느끼는 ‘연민’의 감정을 시로 노래했다.

비간뒤 하늘처럼 파란네눈에
 싸늘한 찬기운이 날고있음은
 슬픈꿈처럼 내맘을 설레노나
 맑게 따뜻하게 타오르는
 한때엔 이맘에 푸른향로로 빛나든그눈이

네눈에취했을때 그동산엔 찬바람불지않고
 청공의온실속에 흰새꿈이 깊어가
 여신의 껏속말로 내곶가를시첫거니
 영원한 안식에 포곤히 감을듯한
 한때엔 이맘에 양의 보금자리를 수놓든그눈이

가없어라 아름답든 그눈에
 파리한시내빛이 흐르고있음은
 새벽을모르는 황혼같고나
 먼언덕에서 희망에춤추든눈

한때엔 이맘에 다정한어머니로 인자하든그눈이.

『네눈은차고나』³⁴⁾(전문)

모운숙은 졸업생 신분으로 교지 『이화』 5집에 시를 실었다. 이 시에서 그녀는 서양의 선교사를 상징하는 파란 눈을 가지고서 언어를 유희하고 있다. 시의 도입부에서 화자는 “한때엔” “이맘에” “푸른향로로 빛나든그눈”에 싸늘한 찬기운이 서리자 “슬픈꿈”처럼 설레고 있다. 화자가 “그눈”에 취했을 때는 “흰새꿈”이 “여신의 귓속말”로 귓가를 스치었고, ‘눈’은 “이맘엔 양의 보금자리”를 수놓았다. 그리고 이제 화자는 그 눈을 “가없어” 한다. “다정한어머니”로 인자한 눈에는 이제 “파리한시내빛”이 흐르고 있다. 파란 눈에서 흐르는 “파리한시내빛”은 “차고” “새벽을모르는 황혼” 같다. 그 파란 눈은 “다정한어머니로 인자”하던 눈은 아니다. “그동산”이자 “청공의운실”은 ‘한때’의 ‘이화여전’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성인이 된 화자는 “양의 보금자리를 수놓든그눈”과 “다정한어머니로 인자하든그눈”을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인에게 이화여전 시절의 선교사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시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금발의 파란 눈 선교사는 문학청년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낯설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종교를 높게 본 탓에 ‘예술적 행동’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고 회고한 모운숙에게 기독교에 매료된 학창시절은 ‘여성’이라는 영토에 갇힌 한정된 공간이다. 여학교 내부에서만 인정되고 여학교 시절에만 가능한 ‘동성애’와 모운숙이 회고한 여학생 시절의 ‘예술적 행동’이 ‘여성’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34) 모운숙, 『이화』 5, 1934, 40쪽.

4. 결론: ‘반’기독교적 배경의 이화여전

식민지 시기 여학교의 교육방침을 가부장주의 담론의 맥락에서 접근했을 때, 여학생의 동성애는 문제적 연애가 되었다. 남성의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여성의 연애는 순결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는 것이다. 순결의식을 주입시켜야 했던 근대 남성의 시선에 의해 여학생은 대상화되었고, 여학생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여학생의 동성애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었다. 여학생들 간에는 자연스러운 행위인 동성애가 가부장주의 담론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지점에서 식민지 시기 기독교 교육의 젠더 분리주의는 ‘반’기독교적 방식으로 거꾸로 전유되어 버렸다.

분리에 기인하는 젠더 교육은 이화여전 여학생들에게 여성 우월주의를 심어주었고, 남성과 분리된 채 감성적으로 성장하게 했다. 기독교의 교리를 주입함으로써 여성 우월주의를 수용했던 이화여전의 여학생들은 정신의 무한한 자유를 선망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화여전 문학청년들에게 예술은 정신의 실천양식이었기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한 자연발생적인 감정을 글로써 표현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예술적 행동으로 여겼다. 남성과 분리된 장소에서 여성 엘리트 교육을 수용했던 이화여전 여학생들에게 동성애는 기독교 교리에 따라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받은 ‘장’의 실천이었다. 여성들만의 공간이어야 했던 ‘이화여전’에서 여학생들은 여성의 죽음을 애도했으며, 동무와 금발의 여성 선교사를 동경하고 연민했다.

동성애와 같은 여학생의 친밀성이 매체를 통해 인지되고 평가되는 이유는 남성적인 시각에서 여성의 순결교육과 연결 지어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여학생 동성애는 이성애의 대체물로서 여학생들에게 권장되고 있었기에 ‘정신적 연애’로 권장되었다. 이러한 ‘정신적 연애’가 가부장적인 젠더관으로 부터 분리된 장소에서는 여성들 간의 낭만적 연애의 형태로 드러났다. 이화여전의 젠더 분리주의 교육과 여성을 타자화하는 방식의 기독교 교육이 당시의 가부장주의 담론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여학생

들이 문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저항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화여전의 교육방침을 내재화한 여학생들은 교지 『이화』를 통해 가부장주의 담론에 억압된 경향을 보이면서도 주체적으로 'S' 감정을 발화하였다. 이때 드러난 'S' 감정이 근대의 여학교에서 발견되는 교육 받은 여성의 신식 감정이다.

여학생 동성애 담론에서 1920년대와 30년대가 구별되는 점은 여학생이 글쓰기로써 여성에 대한 동성애적 감정을 드러냈다는 데에 있다. 미성숙한 주체를 교육시키기 위한 연애로 권장되었던 동성애를 여학생들은 'S'리는 하나의 문화로 형성해 나갔다. 따라서 'S'는 여성 문학장의 고유한 특징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이화여전의 문학청년들은 졸업 후, 근대적 여성 교육제도에 부합하는 여성 문인의 상으로부터 독립되고자 주체를 스스로 변화시키며 학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성 문학장을 지속시켜 나갔다. 이들은 예술가로 식민지 시대에 수용된 근대적 젠더의 틀에 균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교지 『이화』 1, 2, 3, 4, 5집.

노천명, 『노천명 전집 1: 사슴』, 솔, 1997.

『삼천리』, 『신여성』, 『조선일보』, 『중외일보』, 『별건곤』

2. 단행본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11-65쪽.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출판, 2003, 13-51쪽.

심진경, 『한국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299-336쪽.

박차민정, 『조선의 퀴어』, 현실문화, 2018, 234-235쪽.

박현호·박지영 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532-608쪽.

엄미옥, 『여학생, 근대를 만나다』, 역락, 2011, 299쪽-305쪽.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343-353쪽.

태혜숙, 『한국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78-106쪽.

전봉관, 『경성자살클럽』, 살림출판사, 2008, 197쪽.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역, 『성의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18, 46쪽.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11-233쪽.

켈빈 S. 홀, 백상창 역, 『프로이트 심리학』, 문예출판사, 2000, 137쪽.

피에르 부르디외,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284-314쪽.

赤枝香奈子, 『近代日本における女同志の親密な関係』, 角川學芸出版, 2011, 101-206쪽.

3. 논문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 한국의 근대문학과 연애론』, 『비교문학』, 한국비교문학회, 2004, 179-198쪽.

김성은, 『1920~30년대 미국유학 여성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년.

김행숙, 『내면의 미적 발견과 유토피아』, 『한국학연구』 2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87-119쪽.

신지연, 『이광수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동성 간 관계와 감정의 언어화 방식』, 『상허학보』 21, 2007, 181-221쪽.

_____, 『1920~30년대 "동성(연)애" 관련 기사의 수사적 맥락』,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265-293쪽.

오문석, 『식민지 시대 교지(校誌) 연구 (1)』, 『상허학보』 8, 상허학회, 2002,

13-27쪽.

- 윤유나, 『이화여전 출신 문인과 여성 문학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 이명선, 『식민지 근대의 '신여성'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 : 성별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송희, 『한말, 일제하의 여성 교육론과 여성교육정책』, 『여성연구논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05. 187-221쪽.
- 이지연 · 전상숙, 『식민지 시기 여성 고등교육과 가정학의 제도화-미션스쿨 이화여전의 가사와 형성과 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247-280쪽.
- 차민정, 『1920~30년대 '변태'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하신애, 『전시체제 하의 여성성과 징후로서의 동성애』,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2012, 389-424쪽.

Abstract

Ewha Women's College gender separatism education and homosexual emotion of female student literature

Yoon, Yoo-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rough female students the issue of same-sex love on female students being discussed in paternalism discourse of the colonial Chosun. In 1920s, just before proceed from paternalism discourse to heterosexuality, the same-sex love of female students had been encouraging as a relations for keeping their virginity. This work examined the independent school paper issue 'Ehwa' of Ewha women's college young student christian association literature department for analyze female student's same-sex love dicussed without their utterance. Ewha women's college which is 1930's wom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the women education system to basically access an issue of female student's same-sex love in women's college, since Ewha women's college followed gender separatism pollicy of colony. Also, since 1930's women literature field was formed focusing on Ewha women's college, it can interpret the same-sex love that was seen as a the key element of women literature by made from women college-centred. The same-sex love was natural behavior publicly qualified at the mission women school. The forms of expression named 'same-sex love' came on in process train emotional education to female student considered as a symbol of emotional modern people among female student

seems one of the reasons to form women literature based women college. Same-sex love had to affect the growth of individual woman in social system, and colonial separate policy classifying man and woman helped the growth of woman emotionally and instructively as a code called 'same-sex love'.

Superiority awareness trying to fill a strong sense as a woman of sentimentalism writing and school education discipline of Ewha women's college literary youth in optimal age to marry is an unique aspect of wom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 used separatism view in colonial education, and is related to homosexual emotion that appears in the poem.

In introduction, the first chapter, researched about interrelationship between female student's education in sexual morality and same-sex love emerged paternalism discourse. New relationships 'S' of female student cemented at public space school was related with school education discipline. In second chapter, checked the religious education of Ewha women's college had contributed to Ewha women's college student's elitism how to process. The religious education of Ewha women's college was accepted gender separatism to female student, and increased female chauvinism based christian doctrine.

In third chapter, analyzed how gender separatism had affected literary youth's works through the literary columns of school issue Ewha internalized emotional education of Ewha women's college. On the basis of Ewha women's college that cultivate female of ability needed for society, professors of Ewha women's college emphasized intellectual solidarity to their students. In those education policy of Ewha women's college, Same-sex love was

natural acts. Main agent, female student of Ewha women's college, related with society regulation gave metaphysical meaning in their writing connecting with themselves. At this moment, spontaneously emotion given metaphysical meaning of the Christian religion expressed sentimentalism writing. Noh Cheon-myeong and Moh Yoon-sook expressed homosexual emotion as using longing and sympathy. Mingling exercised literature for religion and same-sex love code together is showing that had operated the autonomy of literature at female student's works. In conclusion, the fourth chapter, identified that inner side of Ewha women's college literary youth found on school issue 'Ehwa' identified that had been crashing into paternalism discourse of outside th school. In the paternalism discourse, female same-sex love of women college was seen as an antichrist acts.

Key words : Ewha Women's College, Ewha, Christian Education, Gender Separation Education, Female student, Same-sex love, Chastity Education, Sentimentalism Writing, Emotional Education, Noh Cheon-myeong, Moh Yoon-sook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